

영암군 “모든 정책은 모든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소상원 부군수 주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공개과제 60개 선정·심의...건의사항 수렴 등 논의

영암군은 지난 13일,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소상원 부군수 주재로 2022년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의회에서는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60개를 선정·심의하고 심의위원들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정책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대상은 ▲ 군 역점사업 ▲ 주민 권리

제한사항 ▲ 주민 복지증진 정책 ▲ 군정발전 창의정책 ▲ 5억원 이상 사업 ▲ 3천만원 이상 용역 ▲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며, 이번 심의회에서는 ▲ 군 역점사업(1건) ▲ 주민 복지증진 정책(2건) ▲ 5억원 이상 사업(53건) ▲ 3천만원 이상용역(4건)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영암군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 <영암트롯트 아카데미 조성>, <영암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영암군 가족복합센터 건립> 등 새로 추진되는 굵직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정책의 추진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선정된 정책과제 60건은 모두 공개과제로 채택되었으며 군은 선정과제를 연말부터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전 군민에게 공개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수시 게시할 예정이다. 소상원 부군수는 “앞으로,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공개과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민 복지증진사항이나 관심도가 높은 정책 위주로 과제를 선정하여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실명제가 진정한 군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보고회 개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개 분야 39개 제도 및 시책 적극 홍보

무안군은 지난 12일 군수 주재로 실단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안군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대해 군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파악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보고회에서는

▲청년·일자리분야 ▲농·수·축산분야 ▲보건·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환경·건설분야 ▲교육·행정분야 등 6개 분야 39개 제도시책에 대한 보고를 하고 부서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 공유된 39개 사업에는 신규사업 및 제도 14건, 변경되는 시책은 25건이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송년음악회·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 공연

영광군은 20일과 21일 오후 7시에 송년특집공연 '2022 송년음악회', '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친다. 12월 20일 '2022 송년음악회'에서는 서울극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서훈)가 전해주는 클래식, 오페라, 가곡,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함께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세계를 대표시키고 있는 가수 소향, 테너 손민

호, 소프라노 하나린이 감동적인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12월 21일 '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에서는 명불허전의 공연으로 심금을 울리는 남상일의 깊은 목소리, 흥겨운 무대의 박구윤, 보이스 퀴친연화, 민요의 여왕 조용주가 국악과 트롯의 신선하고도 조화로운 무대를 꾸밀 전망이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시민공청회 개최

28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소각방식·대기오염도 등 토론

목포시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목포해양대학교 김도희 환경·생명공학과

교수가 주제자인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 소각방식별 시공 및 운영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해 소각처리방식(스토커, 열분해) 운영 및 효율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감소를 위한 대기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을 설명하고 자유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시민 건강권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해법 모색을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채재본부

신안군, 군민 건강증진 위한 논의 자리 마련

신안군은 지난 9일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보건진료소장 등 건강증진사업 수행 인력들과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추진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2년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① ICT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산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③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로 건강생활 여건 조성 ④ 정신·치매관리의 선제적 대응 등 군민 스스로 자발적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2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 표창 수상자 2명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며, 대내외적으로 큰 결실을 맺는 한 해를 보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걷기 좋은 환경 조성 과 건강증진의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합평군, '청년 맞춤형 역량교육' 참여자 모집 12월15~30일까지...50여 명 선발

합평군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합평군은 “청년 리더 발굴·양성을 위한 '합평군 청년 맞춤형 역량교육' 참가자를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농업 ▲축산업 ▲e-커머스 ▲소규모창업 ▲IT 등 5개 분야이다. 모집인원은 분야별 10명 내외로 총 5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합평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집 분야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교육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제공할 방침”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합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